

# 비정규직 노동자도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선언, 하야여론 확산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11.08 16:39

## 재벌은 “부역자”이자 “지배권력의 몸통”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비리와 착취로 결속한 박근혜 대통령,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시키라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60여개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박근혜 퇴진! 노동계약 폐기!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은 피해자인 척 하지만 부역자로서 지배 권력의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순실-박근혜 재단(미르, K스포츠)이 재벌에 갑질을 한 것은 표면이다. 그들의 이익이 있기에 푼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상규명이 아닌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가면 바꾼 보수 양당의 낡은 구도를 깨고 노동자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국선언에 나서며 “재벌만 배불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신자유주의 자본 독재 체제를 끝장내자!”, “진상규명 특검 거국중립내락 필요 없다. 민중권력 쟁취하자!”, “최저임금 1만원,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자!”는 등의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비리와 착취로 결속한 박근혜 대통령,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시키라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요구가 담긴 몸벽보를 두르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걷던 중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과 대의원, 동양시멘트, 세종호텔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단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이었고, 몸벽보만 들렀을 뿐이라고 노동자들은 항당해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울분이 가득했다. 일부 발언을 발췌해 소개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 조두환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청소, 경비, 주차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박근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박근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싶고, 아무리 무능해도 편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사실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거짓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속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며, 미르재단과 K스포트스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 한 후, 두달여 뒤인 9월 15일 노사정 아합을 하였고, 한달 뒤인 10월 26일 재벌들의 미르재단 임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왜,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와 기본적인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확대적용 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할 권리인 노조법 2조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재벌 자본이 사생결단하며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일국의 대통령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말살의 주범이 되었고, 공범인 재벌의 사욕을 채우는 데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지회장

"재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통해 뇌물을 상납한 재벌들도 처벌해야 하며 이를 주도한 전경련은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3대세습을 위해 정경 유착에 앞 장선 이재용과 불법파견 확대의 주범인 정몽구 등을 즉각 구속 시켜야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관련하여 차주에 삼성본관에서 정경유착을 주도한 이재용 부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함께 전국50여개 주요도시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 노동계약 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